

“여수가 맡아줘”...전남도 해양과학관 고민되네

도, 기부채납 방식 관리권 이관 추진 여수시, 연간 10억 운영비 부담 걱정

전남도가 여수시 돌산을 전남해양과학관의 관리권 이관을 추진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전남해양수산과

학관 아쿠아리움을 여수시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관받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998년 개관한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은 그동안 누적관객 600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이 지역의 해양수산 관광의 명소로 각광받았다. 35개의 크고 작은 수조에 참돔을 비롯해 자리돔·솜뱅이·군평선아·고등어·노랑가오리 등 100여 종의 남해안 토산어종이 전시되고 있다. 대규모 체험 전용 수족관을 갖춰 관람객들이 직접 어류와 조개 등을

손으로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들어선 초대형 아쿠아리움인 ‘한화 아쿠아플라넷’과의 기능 중복 등으로 경쟁에 밀리면서 활로를 모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올해 전남해양수산과학관 입장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산출되고 있다.

전남도는 애초 서부권으로 검토한 이전 계획도 500억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으로 무산시켰고 기존시설의 보완이나 특화에도 200억원이 소요돼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고 있다. 한편 여수시는 인건비 포함 연간 10억원 안팎의 비용 가운데 7억원 가량이 달하는 적자 부담 때문에 인수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욱기자 kroh@kwangju.co.kr

보성군, 친환경 축산단지 2017년까지 230억 투입

보성군이 오는 2017년까지 230억 원을 들여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친환경축산단지는 농립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벌교읍 추동리 일원 약 15ha 부지에 10~15개 농가가 한우 2000여두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된다. 올해 용역을 통해 축산업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에는 기반 조성비 30억원을 투입해 진입로 확·포장, 지하수 개발, 전기공사, 부지 정리

등을 끝낼 방침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200억원을 투입해 한우 농가에 분양해 친환경 축사 20동과 가축방역 및 공동분뇨 처리 시설 1개소, 농기계 보관 창고 등을 설치한다. 이 단지 조성으로 마을 내 축산 악취 해소는 물론 축산업으로 인한 주민 생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축사 노후화에 따른 축산 경영 악화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순천박람회 한국정원 완공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관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일 박람회장 내 한국정원이 완공됐다. 한국정원은 박람회장 내 11개 세계정원 가운데 2만㎡로 규모가 가장 크다. <순천시 제공>

곡성군 정책개발 워크숍 간부직원 60명 대상

곡성군은 11일부터 2차례에 걸쳐 곡성문화센터 평생학습실에서 정책과제개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군 간부직원 60명을 두 팀으로 나눠 실시되며, 첫 워크숍은 11일부터 13일까지 열렸다.

13일 군에 따르면 (사)한국공공차량연구원에 위탁해 실시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맞는 지자체의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각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다른 지자체를 앞지르겠다는 것이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여수시, 산단 건설근로자 제기 민원 적극 해결

여수시가 여수국가산단 내 건설노동 등 근로자들이 제기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여수건설노동자를 비롯한 여수산단 근로자

들이 오는 16일부터 4월15일까지 실시되는 GS칼텍스 대정부(shot down) 작업 기간 중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석창에서 여수산단로 구간의 교통난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

수자원공사 여수권 관리단과 GS칼텍스 등을 수차례 방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협의의 가졌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시는 그동안 통제됐던 여수산단 확장단지 내 용성 2차단지 우순도를 있는 1.3km구간에 대해 다음달 30일까지 임시사용하기로 했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산수유·매화 봄마중 ‘남도 꽃잔치’ 열린다

광양매화축제 23일·구례산수유꽃 축제 29일 개막

봄을 상징하는 산수유와 매화를 주제로 하는 전남 동부권의 대표 축제들이 이달 막을 올린다. 먼저 제16회 광양국제매화축제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광양시 다압면 섬진마을을 주 무대로 시 전역에서 열린다. 광양시는 이번 축제를 위해 다압면 섬진마을 축제장에서 하동을 화심리 만지마을 앞을 연결하는 연장 약 270m의 부교(교각 없이 배나 뗏목 따위를 잇대어 매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아 만든 다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만지마을 앞 약 3만㎡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관광객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제14회 구례산수유꽃축제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은천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 전국 산수유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례군은 지난 1999년부터 축제를 열고 있다. 축제 개장에 앞서 산수유관광지와 연계된 산수유사랑공원과 산수유문화관 등 산수유테마파크 조성이 끝나 관광객들의 볼거리도 크게 늘어났다. 특히 지리산은천수를 이용한 산수유 족욕체험, 산수유 음식체험 등 산수유 관련 건강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되고, 산수유 카페테리아, 산수유 마을 미션 캠핑 1박 2일 등 체험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구례=이진택기자 lk5826@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순천시-곡성군, 문화·관광협력 증진 업무 협약

순천시가 인근 곡성군과 문화·관광·환경·농업 등 현안 업무 협력을 위해 12일 협력증진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순천시와 곡성군은 앞으로 문화와 관광 그리고 생태와 친환경 농업 등의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지원할 방침이다. 조총훈 순천시장은 “곡성군은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고 친환경농업과 생태환경을 지향하는 등 여수산단 확장단지 내 용성 2차단지 우순도를 있는 1.3km구간에 대해 다음달 30일까지 임시사용하기로 했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수도 순천시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증진 협약으로 곡성군의 행정변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로의 정책을 공유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자”고 말했다. 허남석 군수도 “도시대상 대통령령을 2번이나 수상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전북

결혼 이민여성 의사소통 걱정된다

군산시 다문화센터, 통번역 보조지원자 상근직 채용 등 서비스 본격화

전북지역 시·군지역에 결혼이민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에서 이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통번역 지원서비스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부터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을 확대해 베트남 통번역 보조지원자를 상근직으로 채용했다. 지난 2010년 중국어부터 시작된 결혼 이민자 통번역 지원서비스는 연평균 900여 건이 접수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채용된 베트남 통번역 보조

군은 늘어나는 결혼이민자의 수요가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통번역 지원서비스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부 업무와 외부 관련 업무로 나눠 실시된다. 구체적으로는 입국 초기 상담, 정착 지원,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 정보 제공, 관광사·의료기관 이용 시 통번역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문제 발생 시 통번역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채용된 베트남 통번역 보조

원사 김모씨는 “군산시 다문화가족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베트남 통번역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국어 통번역 지원서비스는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베트남어 통번역 지원서비스는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신청은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우주항공대, 판스타스 혜성 촬영 성공

우윳빛 넓고 밝은 꼬리를 지닌 판스타스(PANSTARRS·사진) 혜성이 전북 남원항공우주천문대에 의해 포착돼 촬영됐다. 남원우주항공대는 12일 “지난 10일 판스타스 혜성을 촬영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촬영된 판스타스 혜성은 충분한 밝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가량은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측 가능시간은 서쪽 하늘에 지평선이 뜨어 있는 장소를 선택해 해가 진 뒤 오후 7시~7시30분 사이이다. 일반인도 사진촬영이 가능한데 카메라, 200mm 전후의 망원렌즈, 삼각대를 준비하면 된다. 혜성은 대부분 15km 이하의 크기로 주로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졌으며 태양에 가까워지면 서 얼음부분이 녹아내리며 꼬리를 형성하는 전체를 말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정음 ‘단속곳춤당산제’

정음시 북면 원오류 마을 ‘단속곳춤당산제’가 음력 2월11일인 지난 12일 열렸다. 원오류마을 당산제는 단속곳(옛 여인들이 입었던 속곳으로 기량이 부분이 터져 있는 바지)을 머리통에 뒤집어 쓰고 바지통에 필을 넣고 자락을 흔들며 춤을 추는 단속곳춤으로 유명하다. 단속곳춤은 주인의 딸을 사모하다 상사병으로 죽었다는 총각 머슴의 님을 달래고자 아내네들이 속옷을 머리통에 쓰고 춤을 추는 해원극으로 알려져 있다. /정음=백기섭기자 parks@

정음시 북면 원오류 마을 ‘단속곳춤당산제’가 음력 2월11일인 지난 12일 열렸다. 원오류마을 당산제는 단속곳(옛 여인들이 입었던 속곳으로 기량이 부분이 터져 있는 바지)을 머리통에 뒤집어 쓰고 바지통에 필을 넣고 자락을 흔들며 춤을 추는 단속곳춤으로 유명하다. 단속곳춤은 주인의 딸을 사모하다 상사병으로 죽었다는 총각 머슴의 님을 달래고자 아내네들이 속옷을 머리통에 쓰고 춤을 추는 해원극으로 알려져 있다. /정음=백기섭기자 parks@

단신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 ‘시민대학’ 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 인근 주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국립공원의 가치와 관리방향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국립공원 시민대학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운영 및 수강생을 모집한다. 기초과정은 14강좌, 심화과정은 11강좌로 구성됐으며, 다음달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운영된다. 강의는 내장산국립공원의 생태 및 문화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졌으며, 기초과정은 정음 지역 내 거주하는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단 심화과정은 2012년 제1기 국립공원 시민대학 수료자만 들을 수 있다. /정음=백기섭기자 parks@

강의는 내장산국립공원의 생태 및 문화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졌으며, 기초과정은 정음 지역 내 거주하는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단 심화과정은 2012년 제1기 국립공원 시민대학 수료자만 들을 수 있다. /정음=백기섭기자 parks@

시민 인문교양교육 ‘군산학 2기 강좌’ 26일 개강

과거의 역사와 현재를 올바로 인식해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의 이룩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군산학(群山學) 2기 강좌가 오는 26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시민들의 종합 인문교양교육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군산학은 지난해 하반기에 개강 이전 군산의 역사, 문화 등을 다룬데 이어 오는 26일(오후 7시~9시)부터 시작되는 2차 과정에서는 개강이후의 군산의 역사, 경제, 음식문화 등 다채로운 주제로 12강좌를 운영한다. 군산학 강좌는 지난해 동지를 틈 군산시평생학습관(구 여성교육장)에서 실시되며, 시는 군산학 2기 강좌 수강 희망자를 20일까지 3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과거의 역사와 현재를 올바로 인식해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의 이룩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군산학(群山學) 2기 강좌가 오는 26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시민들의 종합 인문교양교육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군산학은 지난해 하반기에 개강 이전 군산의 역사, 문화 등을 다룬데 이어 오는 26일(오후 7시~9시)부터 시작되는 2차 과정에서는 개강이후의 군산의 역사, 경제, 음식문화 등 다채로운 주제로 12강좌를 운영한다. 군산학 강좌는 지난해 동지를 틈 군산시평생학습관(구 여성교육장)에서 실시되며, 시는 군산학 2기 강좌 수강 희망자를 20일까지 3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시설원에 현대화 사업 추진 국·도비 98억 포함 163억 들여 품질개선 주력

남원시는 13일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인 시설원에 품질개선 사업비 98억2000여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도비와 시비 등 모두 163억3000여만원을 들여 시설원에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설원에 품질개선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기금 국가 공모사업으로, 원예생산시설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한 시설 현대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딸기, 오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재배농가 등 7개 단지다. 전문단지는 춘향골바래봉파프리카작목회, 일반단지는 춘향골농협딸기작목회 등 5개 단지가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많은 공모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원예시설 개선으로 노동력의 감소 효과, 농가 소득 증대 등 고부가가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지원대상은 딸기, 오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재배농가 등 7개 단지다. 전문단지는 춘향골바래봉파프리카작목회, 일반단지는 춘향골농협딸기작목회 등 5개 단지가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많은 공모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원예시설 개선으로 노동력의 감소 효과, 농가 소득 증대 등 고부가가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순창 방축마을 등 4곳 농촌 리모델링 시범사업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전북 순창 방축마을 등 4개 마을을 선정했다. 대상지역은 전북 순창 방축마을, 경북 영주 두산마을, 충남 서천 송림마을, 전남 진도 안농마을 등이다. 농촌마을리모델링 시범사업은 주민 스스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고 정부는 공공시설, 기초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4개 마을에 마을당 40억원(국비 21억원, 지방비 9억원, 융자 10억원)을 2년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전북 순창 방축마을 등 4개 마을을 선정했다. 대상지역은 전북 순창 방축마을, 경북 영주 두산마을, 충남 서천 송림마을, 전남 진도 안농마을 등이다. 농촌마을리모델링 시범사업은 주민 스스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고 정부는 공공시설, 기초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4개 마을에 마을당 40억원(국비 21억원, 지방비 9억원, 융자 10억원)을 2년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오리사육농가 16곳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주의보

전북 도내 오리사육농가 16곳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농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 도축산위생연구소는 13일 “2월18일 오리와 오리알 13일까지 도내 전체 오리농장(152호)을 대상으로 AI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16농가에서 저병원성 AI가 검출됐

다”고 밝혔다. 남원이 8곳으로 가장 많고 정음 3농가, 김제·임실·고창·부안 각 1농가다. 저병원성은 전파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바이러스여서 감염된 오리나 닭을 처분하지는 않고 검출된 사육장 내 소독을 강화하면 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